



## 서른여섯번째 이야기

### 바울처럼 그들처럼

[2023 네팔 아웃리치 후기]



드디어 네팔로 출발~~ 예약한 항공사의 비행 취소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네팔로 출발하였다. BEE의 정책에 맞게 선택한 저가 항공인 동방항공으로 2박 3일이 걸려 드디어 카드가 목사님의 딸, 아들, 그의 친구의 꽃다발 환영 속에 무사히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다. 호텔에서 하루를 머물고 목적지인 다란에 가기 위해 다시 또 국내선 비행기와 택시를 이용하여 다란 교회에 도착하였다. 이미 네팔에 도착한 조문상 선교사님은 WLICC 과목 인도와 한 차례의 졸업식을 마친 상황이었다.



다음날 일찍부터 다란 교회 20주년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원래 계획은 현지 선교사님과 인도자들 다섯 분과의 만남이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참석하신 분들로 인해 더욱 풍성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총 아홉 분의 현지 인도자들의 생생한 사역 내용을 들으면서 감동과 감사와 미안함이 몰려와 주체 못할 먹먹함으로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특히나 교통편이 쉽지

않은 서부지역을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활동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들으며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우리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졌다. 추가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가져간 선물의 개수가 부족했으나 조문상 선교사님의 기가 막힌 지혜로 재미있고 풍성한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늦은 밤까지 조 선교사님을 통해 초기 네팔 사역의 시작 상황과 서로가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사연들을 나누는 즐거운 간증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 서로서로 축복하며 행복한 졸업식을 무사히 마치고, 장장 16시간을 논스톱으로, 폐차할 시기도 훨씬 넘긴 것 같은 무시무시한 버스를 타고 드디어 포카리에 도착했다. 동행해 주신 실라스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보다 더 험한 길을 한 달에도 몇 번씩 다니신다고 하니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힘든 여정에 대해 겉으로 내색할 수도 없었다.

네팔 땅 안에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제자들을 세우겠다는 소명에 자신을 헌신하고 계신 모습에 얼마나 감동하였는지... 사도바울의 모습이 딱 이러했을 것 같다. 최고의 주의 일꾼과 함께

하니 그저 좋기만 해서 행복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한밤중 탱크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내내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생각했던 네팔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다. 우리 팀이 하기로 한 교회창립 예배 축하와 졸업식 참석도 뜻깊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힘든 이곳에서도 깊은 오지를 향해 주님의 전사로 나아가는 그분들에게서 사도바울의 영성을 발견한 것이 이번 선교여행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 싶다. 막연했던 중보기도에서 벗어나 확실한 기도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번 아웃리치의 큰 수확이었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배려의 끝판왕 김종량 집사님과 불도저 같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숙현 집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조문상 선교사님의 정확한 상황판단력과 실천력이 함께하는 지혜와 무엇이든 기억하는 기억력에 경의를 표하며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양희주 권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하며 우연히 BEE에 말씀 공부하러 왔다가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까지 11년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서남아 기도 테이블 리더로 섬기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 BEE 소식

-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어나나 아만이나나 지혜 있는 자나

아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 12월 16일(토)~1월 20일(토)까지 BBE 토요 기도모임은 온누리 교회의 ‘작은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로 인해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선교사와 선교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가 계속됩니다.
- 23 겨울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에 말씀과 함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BEE KOREA가족들 모두  
주님의 복 가득한 새해 되세요